

양보 행동 동기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 성인과 학령 전기 아동의 이해

윤 지 영 송 현 주¹⁾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에 따라 감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능력의 발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 성인(실험 1)과 한국 아동 만 5, 6세(실험 2)에게 양보 행동을 하는 행위자의 바람이 충족 또는 비충족 되는지(공을 양보한 뒤 자신도 가지고 놀 수 있게 되는지 또는 상대방만 가지고 놀게 되는지)와 그러한 양보 행동의 동기가 내적 또는 외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자신 스스로 양보하는지와 엄마가 시켜서 양보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준 후 행위자의 감정이 어떨지(좋은지, 나쁜지, 그저 그런지)에 대해 추론하게 하였다. 성인, 아동 모두 행위자의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보다 바람이 충족되었을 때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추론하였고, 타의로 양보하였을 때보다 자의로 양보하였을 때 더 긍정적인 정서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만 5, 6세 아동들도 자신의 바람 충족 여부뿐만이 아닌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에 따라 정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어: 감정, 바람, 동기, 친사회적 행동, 양보 행동

사람의 감정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중에 가장 자명한 것은 바람의 충족 여부이다. 대체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떨까?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한 아

이가 울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이를 본 친구가 스스로 자신이 먹고 있던 사탕을 양보하여 아이가 울음을 멈추게 된 상황과 본인은 원치 않지만 선생님께서 친구에게 양보하라고 하여 사탕을 준 경우를 비교해 보자. 비록 결과적으로 두 상황 모두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였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

1) 교신저자: 송현주, E-mail: hsong@yonsei.ac.kr

* 실험을 도와준 연세대학교 아동발달 연구실 연구원, 학부생 연구 조교, 연구에 협조해 주신 부모님들 및 아동 참가자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3-A2033375).

리가 느끼는 감정은 다를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여 행동한 상황에서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아동들은 일찍부터 바람과 감정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만 2, 3세의 어린 아동들도 바람의 충족은 긍정적인 감정을, 바람의 비충족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Lagattuta, 2005; Wellman & Lagattuta, 2000; Wellman, Phillips, & Rodriguez, 2001; Wellman & Woolley, 1990). 이러한 발달 양상의 국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전명숙과 김혜리(1999)는 규칙에 대한 언급 없이 바람과 정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5세 아동의 81% 정도가 바람이 충족되면 긍정적인 정서를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정서를 추론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아동들은 성장하면서 타인의 감정이 바람 충족 여부 이외의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점차 이해하기 시작한다.

첫째, 아동들은 도덕적 규범의 위반 여부가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한다. Arsenio와 Kramer(1992)는 4, 6, 8세 아동에게 자신이 원하는 사탕을 훔치는 행동을 한 사람의 기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4, 6세 아동들은 바람 충족 여부만을 고려하면서 감정을 추론하였지만, 8세 아동들은 행동이 도덕적 규범을 위반하였는지를 고려하면서 정서를 예측하였다. 즉, 바람은 충족되었지만 도덕적 위반 행동이 동반된 경우, 행위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아동들의 이러한 도덕적 위반 행동을 고려한 정서 예측의 발달 과정은 많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검증되었다(이현진, 2009; Arsenio, 1988; Keller, Gummerum, Wang, & Lindsey, 2004; Núñez & Harris, 1998; Nunner-Winkler & Sodian, 1988; Peterson & Siegal, 2002). 예를 들어 이현진(2009)은 5-8세 아

동들이 바람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도덕적 위반의 의도성에 따라 정서적 경험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둘째, 7세 이상의 아동들은 사회적 규칙에 따라서 타인의 감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Lagattuta(2005)는 금지 규칙(예, 차밭에서 공놀이하면 안 된다.)과 바람(예, 차밭에서 공놀이하고 싶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4, 5, 7세 아동들이 어떠한 정서를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4, 5세 아동들은 규칙을 위반하여도 자신의 바람이 충족되었을 때 긍정적인 정서를, 규칙을 따름으로써 자신의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정서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7세 아동들은 규칙을 위반하면서 자신의 바람이 충족된 경우, 부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하였다.

셋째, 5세경부터 아동들은 친사회적 행동이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원정애와 송현주(2009)는 아동이 타인의 감정과 바람,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인과 아동에게 행위자의 바람이 충족되는지 여부, 행위자가 바람의 대상을 타인에게 양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6가지 이야기를 들려준 후 행위자의 감정에 대해 예측하게 하였다. 즉,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바람 충족 여부(바람 충족, 바람 비충족)와 양보 행동 여부(기저선, 양보 함, 양보 안 함)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였다. 연구 결과, 만 5-6세 아동들이 바람의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양보 행동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도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이해함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원정애와 송현주(2009)의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와의 관계의 본질을 좀 더 검증하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에

따라 감정이 변화할 수 있음을 아동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원정애와 송현주(2009)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의 의도는 명시되지 않았고 결과만 명시되어 아동들이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와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친사회적 의도를 고려하는지, 친사회적 결과만을 고려하는지를 밝히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내적 동기에 의한 친사회적 행동과 외적 동기에 의한 친사회적 행동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를 수 있음을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자신이 원해서 동생에게 장난감을 양보하는 것(내적 동기)과 엄마가 시켜서 동생에게 장난감을 양보하는 것(외적 동기)은 다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아동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자기 결정성 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에 의하면 인간에게 작용하는 동기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눈다(e.g. Deci & Ryan, 2002).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는 어떤 행위 자체가 즐겁고, 자연 발생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됨을 뜻하며,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는 행위가 다른 결과, 즉 보상이나 벌을 피하는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일을 함을 뜻한다. 자기 결정성은 처음에는 외적인 이유로 시작한 행동이 개인에게 점차 내면화되어 자율적인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부모나 성인과 같은 타인으로부터 획득된 신념, 태도, 행동 등이 개인의 가치나 행동의 유형으로 점차 변형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의 동기 역시 내적 동기와 외적인 동기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의 이타성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의견이 존재한다. 어떠한 학자들은 인간의 이타적인 모 든 행동은 외적 동기, 즉, 외적인 보상과 처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Bar-Tal, 1982; Cialdini, Baumann, & Kenrick, 1981; Dovidio, Piliavin, Schroeder, & Penner, 2006). 이와 달리, Warneken과 Tomasello(2008) 연구에 따르면 20개월 아기들도 외적인 보상에 의한 이타적인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Warneken과 Tomasello는 도움 행동을 한 20개월 아기들에게 세 가지의 다른 처치(외적 보상-물질적, 내적 보상-칭찬, 기저선-무보상)를 한 후, 다시 도움 행동을 하는지 측정하였다. 그 결과, 무보상 조건과 칭찬 조건에서는 아기들이 반복적으로 도움 행동을 하였다. 하지만 물질적 보상 조건에서는 아기들의 도움 행동이 감소하였다. 즉, 외적인 보상은 오히려 이타적인 경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내적 동기에 의한 양보 행동(자의적 양보 행동)과 외적 동기에 의해 수행되는 양보 행동(타의적 양보 행동)이 유발할 수 있는 감정 상태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추론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들이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 중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나누어 주는 양보 행동의 동기와 바람 충족 여부, 감정 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아동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실험 1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에게 사용될 패러다임을 실시하여 보았다. 이는 실험 패러다임의 적절성을 검증해보고 실험 2에서 수집될 아동들의 자료를 평가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준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실험 2는 실험 1에서 검증된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만 5, 6세 한국 아동들이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를 고려하여 정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실 험 1

연구대상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20-30대 성인 32명(평균 연령 = 28.4세, 연령 범위 22.7-39.4세, 남 16명, 여 16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역균형화된 8가지의 목록에 각 4명씩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실험자극

본 연구에 사용된 이야기는 양보의 동기(자의, 타의)와 행위자의 바람 충족 여부(충족, 비충족)에 따라 총 4가지의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각 조건에서는 주인공과 다른 인물(친구)이 모두 같은 사물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1) 주인공이 그 사물을 자의 또는 타의로 상대방에게 양보하는지와 (2) 결과적으로 주인공의 바람이 충족 또는 비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이야기가 사용되었다. 이야기 속 제시되는 사물에 따라 감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각 조건에 사용되는 사물을 역균형화하여 총 8가지 이야기 목록을 만들었다. 피험자는 이러한 목록 8가지 중 하나를 제시받았고, 하나의 목록은 총 4가지의 조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순서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각 참가자에게 제시되는 조건의 순서는 역균형화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4가지 조건 목록의 예는 다음과 같다.

바람 충족, 자의

미호와 승철이가 있어. 집에 공이 하나밖에 없었어. 미호는 공을 가지고 놀고 싶었어. 그런데 미호는 승철이도 공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어. 미호는 승철이를 좋아해. 미호는 공을

가지고 놀고 싶었지만, 승철이에게 공을 양보하기로 했어. 미호는 승철이에게 “승철아, 네가 공 가지고 놀아”하면서 공을 주었어. 그러자 승철이가 “우리 같이 가지고 놀자”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미호와 승철이는 모두 공놀이를 할 수 있었어.

그러면 미호 기분은 어땠을까?

미호는 착한 아이야? 나쁜 아이야?

바람 충족, 타의

영희와 철수가 있어. 집에 장난감 자동차가 하나밖에 없었어. 영희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싶었어. 그런데 철수도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싶었어. 그래서 영희 엄마가 “영희야, 철수에게 장난감 자동차 양보해줄래?”라고 말했어. 영희는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싶었지만, 철수에게 자동차를 주었어. 그러자 철수가 “자동차 같이 가지고 놀자”라고 했어. 그래서 영희와 철수는 모두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 수 있었어.

그러면 영희 기분은 어땠을까?

영희는 착한 아이야? 나쁜 아이야?

바람 비충족, 자의

유리와 민혁이가 있어. 집에 자전거가 한 대 밖에 없었어. 유리는 자전거가 타고 싶었어. 그런데 유리는 민혁이도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어. 유리는 민혁이를 좋아해. 유리는 자전거가 타고 싶었지만, 민혁이에게 자전거를 양보하기로 했어. 유리는 민혁이에게 “민혁아, 네가 자전거 타”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유리는 자전거를 타지 못했고, 민혁이는 자전거를 타고 놀았어.

그러면 유리 기분은 어땠을까?

유리는 착한 아이야? 나쁜 아이야?

바람 비충족, 타의

현정과 지수가 있어. 놀이터에 그녀가 하나밖에 없었어. 현정은 그녀가 타고 싶었어. 그런데 지수도 그녀가 타고 싶었어. 그래서 현정이 엄마가 “현정아, 지수에게 그녀 양보해줄래?”라고 말했어. 현정은 그녀가 타고 싶었지만, 지수에게 그녀를 양보해 주었어. 그래서 현정은 그녀를 타지 못하고, 지수는 그녀를 타고 놀았어.

그러면 현정이 기분은 어땠을까?

현정은 착한 아이야? 나쁜 아이야?

절차

본 연구에 참가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은 연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가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 참가자들은 4가지 조건의 이야기가 포함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에 제시된 각 조건의 이야기를 읽은 후, 주인공의 감정(좋은지, 나쁜지, 또는 그저 그런지)은 어떨지에 대한 추론 질문과 주인공의 도덕성(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에 대한 추론 질문에 답하였다.

점수화

감정 추론 질문과 도덕성 추론 질문에 대해 각각 점수를 부여하였다. 주인공의 감정에 대한 추론은 기분이 ‘좋다’, ‘그저 그렇다’, ‘나쁘다’로 측정하였고, 각각 1점, 0점, -1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따라서 1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감정을, -1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부여한 것을 의미한다. 주인공의 도덕성에 대한 추론은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로 측정하였고, 각각 1점과 0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따라서 1점에 가까울수록 주인공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결 과

실험 1의 연구 결과를 성별과 시행 순서를 포함하여 예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 $F_s < 1$, n.s..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성별과 순서 요인을 포함하지 않았다. 본 실험에서는 종속변인에 대한 2(동기: 자의, 타의) x 2(바람: 충족, 비충족)의 2원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감정 추론 질문에 관한 결과

성인들의 감정 추론 질문에 대한 반응 평균치는 그림 1과 같다. 바람의 주효과($F(1, 30) = 84.266$, $p < .001$)가 유의미하여, 바람 충족 조건($M = .813$, $SE = .054$)에서 비충족 조건($M = .016$, $SE = .065$)보다 더 긍정적인 정서를 추론했음이 나타났다. 동기의 주효과($F(1, 30) = 35.421$, $p < .001$)도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는 자의 조건일 때($M = .750$, $SE = .055$), 타의 조건일 때($M = .081$, $SE = .081$)보다 더 긍정적인 정서를 추론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바람과 동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F(1, 30) = 16.429$, $p < .001$). 사후 분석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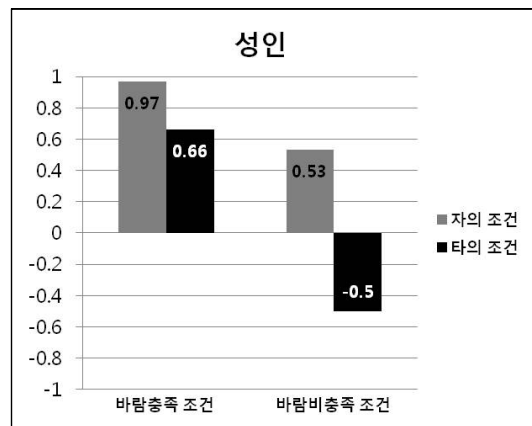


그림 1. 감정 추론 질문에 대한 성인 응답의 평균

과, 이러한 상호작용은 바람 충족 조건과 바람 비충족 조건 모두에서 타의 조건보다 자의 조건에서 더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정서를 추론하였으나(바람 충족 조건: $t(31) = 2.743, p < .01$; 바람 비충족 조건: $t(31) = 6.254, p < .001$), 바람 비충족 조건에서의 동기의 효과(자의와 타의 조건 간의 점수 차이값= 1.031)가 바람 충족 조건에서의 동기의 효과(자의와 타의 조건 간의 점수 차이값= .313)보다 더 컸음에 기인함이 드러났다.

도덕성 추론 질문에 관한 결과

성인 참가자들의 도덕성 추론 질문에 대한 반응의 평균치는 표 1과 같다. 모든 참가자들은 바람 충족 여부나 동기와 관계없이 주인공을 착한 아이라고 판단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조건 간 차이는 없었다($F_s < 1$). 나이와 성별 효과 또한 없었다($F_s < 1$). 성인 참가자들은 주인공이 양보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바람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주인공에게 긍정적인 도덕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자의로 양보를 한 때와 타의로 양보를 한 때에도 모두 높은 도덕성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들의 도덕성 추론 판단에 바람의 충족여부와 동기가 무관하게 영향을 미치며 주인공이 양보 행동을 하였으면 긍정적인 도덕성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 1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들은 타인의 감정을 추론할 때, 바람이 충족되지 않은 때보다 바람이 충족되었을 때에 더 긍정적인 감정을 추론하였다. 둘째, 성인들은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가 감정에 영향을 미침을 이해하였다.

표 1. 도덕적 판단 질문에 대한 성인 응답의 평균

	바람 충족		바람 비충족	
	자의	타의	자의	타의
성인	1.00	1.00	1.00	0.94

타의에 의해 양보하였을 때보다, 자의로 양보를 하였을 때 더 긍정적인 감정을 보고하였다. 셋째, 양보 행동의 동기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론은 바람 충족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바람이 충족되었을 때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모두 타의로 양보한 때보다 자의로 양보한 때에 더 긍정적인 감정을 추론하였지만, 자의 조건과 타의 조건의 차이는 바람 비충족 조건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자의로 양보를 하였을 때에 바람이 충족되지 않아도 긍정적인 감정을 보고하였지만, 타의로 양보하였을 때에는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하였다. 넷째, 성인들은 양보 행동을 한 주인공에 대한 도덕성 추론 판단을 할 때 바람 충족 여부와 동기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양보 행동을 한 주인공의 도덕성은 바람과 동기와 관계없이 모두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실험 2

실험 2에서는 한국 만 5, 6세 아동들이 실험 1과 유사한 과제에 참가하였고, 아동들이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 바람 충족 여부에 따른 감정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대상

본 실험에는 만 5세 23명(평균 연령 = 66.8개월, 연령 범위 61.7-71.2개월, 남 11명, 여 12명)과 만 6세 16명(평균 연령 = 77.7개월, 연령 범위 72.3-82.7개월, 남 8명, 여 8명), 총 39명이 참가하였다. 추가로 3명의 아동(5세: 1명, 6세: 2명)이 실험에 참가하였으나 실험 과제 및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참가 아동들

은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육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의 홍보를 통하여 모집하였다.

실험 자극

본 실험에 사용된 이야기는 실험 1에서 사용한 이야기와 동일하였다. 실험 1과 달리 아동들에게는 컴퓨터 화면으로 그림을 보여주며 실험자가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절차

본 실험은 대학교 안 실험실에서 한 아동씩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보호자는 실험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들은 후 실험 참가 동의를 작성하였다. 실험이 시작되기 전, 아동이 실험실 환경과 실험자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대기실에서 약 15분 정도 놀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은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진 후, 실험자와 함께 실험장치가 마련된 방으로 이동하여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자는 아동에게 각 조건의 이야기에 상응하는 그림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 아동이 총 4가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각 이야기가 끝난 후 실험자가 아동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주인공의 기분은 어떨지(좋다, 그저 그렇다, 나쁘다)에 대한 감정 추론과 주인공은 어떤 아이인지(착하다, 나쁘다)에 대한 도덕성 추론 판단을 하게 하였다. 아동이 감정 추론 질문을 판단할 때에는 세 가지 감정의 얼굴 표정이 그려진 자석을 판을 보여주고 해당 기분에 자석을 붙이게 하였다. 각 얼굴 표정에 대한 아동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시작 전 실험자는 아동에게 각 얼굴 표정에 대해 어떤 기분인지 물어보았다. 아동이 틀린 경우, 실험자가 다시 설명하여 아동의 이해를 도왔다. 실험의 전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으며, 아동의 반응은 사후에 녹화된 비디오 자료를 통해서 분석되고 점수화되었다.

점수화

감정 추론 질문과 도덕성 추론 질문에 대해 실험 1과 동일하게 점수를 부여하였다.

결 과

예비 분석 결과, 이야기 순서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이후 보고되는 분석에서는 이야기 순서 변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F_s < 1$.

아래에 보고되는 분석 결과는 각 종속 측정치에 대한 2(동기: 자의, 타의) x 2(바람: 충족, 비충족) x 2(연령: 5세, 6세) x 2(성별: 남, 여)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이다.

감정 추론 질문에 관한 결과

아동들의 감정 추론 질문에 대한 반응 평균치는 그림 2와 같다. 우선 바람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F(1, 35) = 134.782, p < .001$), 이는 바람 충족 조건($M = .859, SE = .052$)에서 비충족 조건($M = -.359, SE = .082$)보다 더 긍정적인 정서를 추론했음을 의미한다. 동기의 주효과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나($F(1, 35) = 6.269, p < .05$), 자의 조건일 때($M = .333, SE = .059$), 타의 조건일 때($M = .167, SE = .050$)보다 더 긍정적인 정서를 추론했음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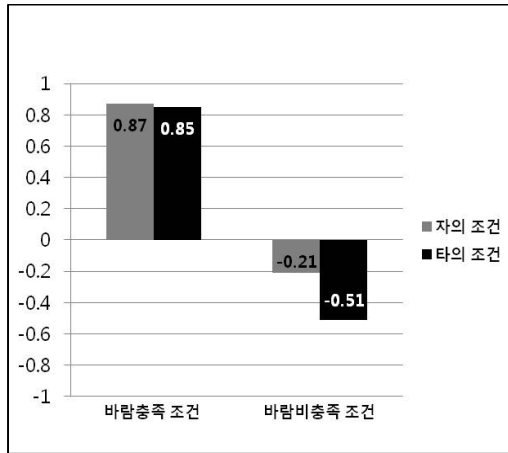


그림 2. 감정 추론 질문에 대한 아동 응답의 평균

그리고 바람과 동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 35) = 5.455, p < .05$). 사후 분석 결과, 바람 충족 조건에서는 자의 조건과 타의 조건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t(38) < 1$), 바람 비충족 조건에서는 타의 조건에서보다 자의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더 긍정적인 정서를 추론하였다($t(38) = 6.254, p < .01$).

연령과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연령: $F(1, 35) = 1.453, p = .236$; 성별: $F(1, 35) = .712, p = .404$), 연령과 성별 요인과 다른 요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호 작용이 나타났다. 우선 동기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F(1, 35) = 4.212, p < .05$). 남아에서는 동기의 효과가 유의미하였지만($F(1, 18) = 6.680, p < .05$), 여아에서는 동기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F(1, 19) = .192, p = .666$).

마지막으로 바람, 동기, 나이, 성별 간 4원 상호 작용이 있었다($F(1, 35) = 6.273, p < .05$). 이 상호 작용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5세 남아, 5세 여아, 6세 남아, 6세 여아 집단 각각에서 2(바람) x 2(동기) 분석을 하였다. 각 집단의 감정 추론 질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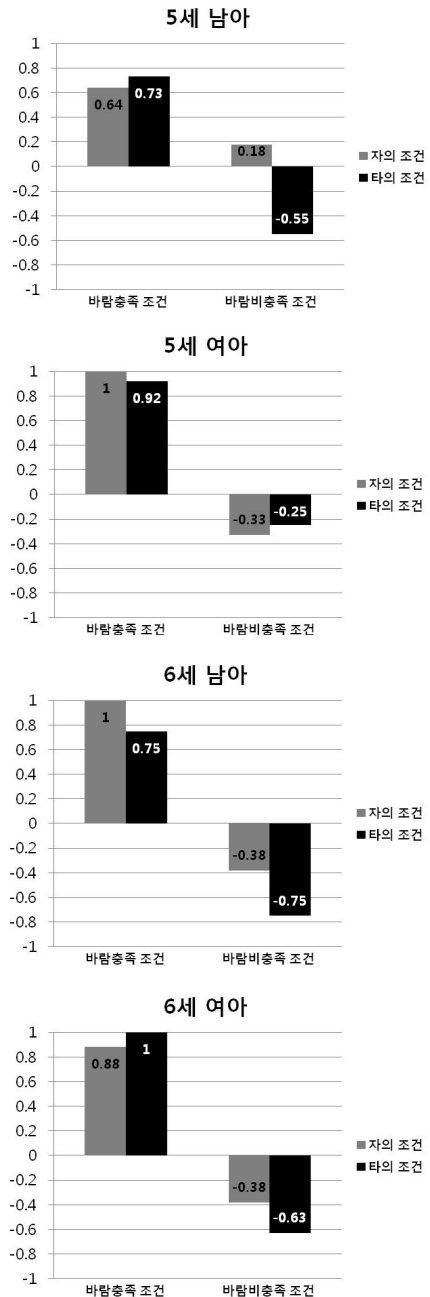


그림 3. 감정 추론 질문에 대한 5세 남아, 5세 여아, 6세 남아, 6세 여아의 응답 평균

대한 반응 평균치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5세 남아 집단에서는 바람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F(1, 10) = 11.645, p < .01$), 동기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 10) = 2.692, p = .132$). 동기와 바람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였다 ($F(1, 10) = 7.642, p < .05$). 바람 충족 조건에서는 자의, 타의 조건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t(10) < 1$), 바람 비충족 조건에서는 타의 조건에서보다 자의 조건에서 더 긍정적인 정서를 추론하였다($t(10) = 3.068, p < .05$).

반면 5세 여아는 바람의 주효과($F(1, 11) = 75.000, p < .001$)만이 유의미하였고, 동기의 주효과($F(1, 11) = .000, p = 1.000$)나 동기와 바람 간의 상호 작용($F(1, 11) = .647, p = .438$)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6세 남아는 바람의 주효과($F(1, 7) = 35.951, p < .005$)와 동기의 주효과($F(1, 7) = 5.645, p < .05$)가 유의미하였다. 바람과 동기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F(1, 7) = .304, p = .598$). 6세 여아는 바람의 주효과만이 유의미하였고($F(1, 7) = 52.155, p < .001$), 동기의 주효과($F(1, 7) = .304, p = .598$)나 동기와 바람 간의 상호 작용($F(1, 7) = 4.200, p = .080$)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도덕성 추론 질문에 관한 결과

아동 참가자들의 도덕성 추론 질문에 대한 반응의 평균치는 표 2와 같다. 변량분석 결과, 조건 간 차이는 없었다($F_s < 1$). 나이와 성별 효과 또한

표 2 도덕적 판단 질문에 대한 아동 응답의 평균

	바람 충족		바람 비충족	
	자의	타의	자의	타의
아동	0.91	1.00	0.96	0.87

없었다($F_s < 1$). 모든 참가자는 우연 수준(.5)과 비교하여 바람 충족 여부와 동기와 관계없이 주인공을 착한 아이라고 판단하였다($t_s > 8.075, p < .001$). 주인공의 바람이 충족 또는 비충족 되었다 라도 양보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도덕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자의로 양보한 때와 타의로 양보한 때에도 모두 높은 도덕성 판단을 하였다. 타의로 양보하여 바람이 비충족된 때에만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의 도덕성 추론 판단에 바람의 충족 여부와 동기가 무관하게 영향을 미치며 주인공이 양보 행동을 하였으면 긍정적인 도덕성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 2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 6세 아동들은 바람이 충족되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추론하였다. 둘째, 타의(엄마)에 의해서 양보를 했을 때보다 자의로 양보를 하였을 때 더 긍정적인 감정을 보고하였다. 셋째, 바람이 충족되었을 때 양보 행동 동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는 자의에 의해 양보한 상황보다 타의에 의해 양보한 상황에서 더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하였다. 넷째, 남아들은 바람 충족과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에 따라 감정을 다르게 예측하였으나, 여아들의 감정 추론은 바람 충족 여부에만 영향을 받고,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다섯째, 바람, 동기, 연령, 성별 간의 4원 상호 작용이 유의미하여 5, 6세 남아, 여아 네 집단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네 집단 모두 바람의 충족되었을 때 충족되지 않았을 때보다 더 긍정적인 정서를 추론하였다. 하지만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가 영향을 주는 양상은 각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6세 남아들은 바람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자의적 양보 행동이 타의적 양보 행동보

다 더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함을 추론하였다. 5세 남아들은 바람과 동기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보여, 바람이 충족되었을 때는 동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타의로 양보하였을 때 자의로 양보했을 때보다 주인공이 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으로 추론했다. 여아들은 5, 6세 집단 모두 주인공의 감정을 추론할 때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여섯째, 도덕성 추론은 양보 행동을 할 때 바람 충족 여부나 양보 행동의 동기와 상관없이 모두 착한 행동이라고 판단하였다.

전체 논의

기존 연구들은 바람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의도, 도덕적 규범, 사회적 규칙,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다양한 상황적 요인이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능력의 발달을 검증해왔다(원정애 & 송현주, 2009; 이현진, 2009; 전명숙 & 김혜리, 1999; Astington & Gopnik, 1991; Lagattuta, 2005; Wellman & Woolley, 1990). 예를 들어 만 5세 이상의 한국 아동들은 양보 행동을 했을 때 양보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음을 이해한다(원정애, 송현주, 2009). 본 연구는 이런 기존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 유형에 따라 감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한국 성인과 아동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성인과 아동 집단 간의 유사점

실험 1의 성인 참가자들의 결과와 실험 2의 만 5, 6세 아동들의 결과 간에는 다음과 같은 유사점들이 있었다. 첫째, 두 집단 모두 바람이 충족될

때 긍정적인 감정을, 충족되지 않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예측하였고, 이는 기존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이다(원정애 & 송현주, 2009; Lagattuta, 2005; Wellman et. al., 2001; Wellman & woolley, 1990). 둘째, 성인과 아동 모두 동기에 따라 다른 감정을 추론하였다. 외적 동기(엄마의 요청)에 의한 양보 행동보다 내적 동기에 의한 양보 행동에 더 긍정적인 정서를 부여하였다. 이는 단순히 친사회적 행동 자체보다도 자발적으로 일어난 친사회적 행동이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음을 학령 전기 아동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성인과 아동 모두 바람과 동기간의 상호 작용을 보였다. 성인과 아동 자료 모두에서 바람이 충족되었을 때보다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친사회적 동기가 감정 추론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넷째, 도덕성 추론은 두 집단 모두 바람 충족 여부 또는 행동의 동기와는 무관하게 양보 행동을 한 행위자를 도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도덕성 추론 판단에서 바람 충족과 동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만 5, 6세 아동들과 성인 간에 상당한 연속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만 5, 6세 아동들도 성인들과 유사하게 타인의 감정과 도덕성을 추론함에 있어서 바람 충족 및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를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인과 아동 집단 간의 차이점

바람 충족과 동기 유형 간의 상호 작용 양상에서는 실험 1의 성인 참가자들과 실험 2의 만 5, 6세 아동들 간에 몇 가지 차이점이 나타났다.

우선 실험 1에서 성인은 바람 충족, 바람 비충족 조건 모두에서 자의에 의한 양보 행동이 타의에 의한 양보 행동보다 긍정적 정서를 유발할 것

이라고 추론하였다. 실험 2의 아동들은 바람 충족 조건에서는 양보 행동의 동기와 관계없이 매우 높은 긍정적 정서를 추론하여 자의와 타의 조건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바람 비충족 조건에서만 자의, 타의 조건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감정 추론 시 아동들은 성인들보다 바람 충족 여부에 더 강하게 영향을 받고, 바람 충족 조건에서 매우 높은 긍정적인 정서를 추론하다보니 일종의 ‘천장 효과’가 나타나 양보 행동의 동기가 영향을 주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은 바람 충족과 비충족 조건 모두 자의에 의한 양보 행동에 긍정적 정서를 추론하였다. 하지만 아동은 바람 비충족 조건의 자의적 양보 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추론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성인은 자의로 양보하였을 경우,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주인공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부여하지만, 아동은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는 긍정적인 정서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자료 역시 성인과 비교하면 아동들이 바람 충족 여부에 더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인에 비해 아동이 정서 추론 시 바람 충족 여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실험 1과 2의 자료를 같이 분석해보았다. 2(연령: 성인, 아동) x 2(바람 충족 여부: 충족, 비충족) x 2(친사회적 동기: 내적 동기, 외적 동기)의 분산 분석을 한 결과 바람과 연령 간의 상호 작용($F(1, 67) = 8.524, p < .01$)과 동기와 연령 간의 상호작용이 있었다($F(1, 67) = 15.938, p < .001$). 사후 분석 결과, 아동과 성인 모두 바람이 비충족되었을 때 더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하였지만, 그 차이가 아동(차이값 = 1.218)에게서 성인(차이값 = .797)보다 더 컸음이 나타났다. 또한 아동과 성인 모두 타의에 의해 양보를 하였을 때 더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하였지만, 그 차이가 성인(차

이값 = .672)에게서 아동(차이값 = .166)보다 더 컸음이 나타났다.

성인과 달리 아동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중 흥미로운 점은 나이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 것이다. 여아들은 행위자의 정서를 추론 시, 동기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고 바람 충족 여부에만 영향을 받았다. 이와 달리 남아들은 바람과 동기 모두에 의해 정서가 영향을 받았다. 이와 같은 성차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되어온 친사회적 행동에서의 성차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많이 기대하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여아들이 더 많이 보상받기 때문에 여아들의 이타성이 더 높다(Koehn, 1998; Power & Shanks, 1989). 이러한 성차의 원인으로 Fabes와 Eisenberg(1998)는 부모의 사회화 관례(socialization practices)에 의한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만 3-5세 아동에게 10개의 스티커를 주고 본인과 익명의 아동에게 분배할 것을 지시하였을 때,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더 많은 스티커를 익명의 아동에게 나누어 주었다(Gummerum, Hanoch, Keller, Parsons, & Hummel, 2010).

본 연구에서는 왜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민감성을 덜 보였던 것일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차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성차와는 다른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해의 발달이 늦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은 타인의 관심과 주장에 더 민감하다. 타인의 경험과 다양한 관점들은 여성이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Kujala & Pietilainen, 2004). 도덕성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성들은 도덕성을 정의나 규범과 같은 기준보다 타

인과의 화합을 기준으로 판단하곤 한다. 예를 들어 Gilligan은 여성들이 배려-기반(care-based orientation)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뿐만이 아닌 타인과 상황에 의해 도덕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Gilligan, 1982; Gilligan & Attanucci, 1988). 본 연구에서 여아들이 타의에 의한 친사회적 행동을 자의에 의한 친사회적 행동과 유사하게 평가한 것도 타의에 의한 친사회적 행동이 타인과의 화합에 이바지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일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추정해본다. 이러한 남아와 여아 사이의 흥미로운 성차는 아동들이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에 따른 감정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성별효과에 대한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향후 연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만 5, 6세 아동들이 성인들과 유사하게 자신의 바람 충족만이 아닌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동기 또는 의도가 감정 추론과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향후 연구에서는 양육 환경과 형제 유무, 순서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과 함께 이런 이해의 발달을 살펴본다면 아동의 이타성 발달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원정애, 송현주 (2009). 타인의 감정, 바람,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한국 아동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4), 57-71.
- 이현진 (2009). 한국 아동에서 살펴본 바람, 의도, 정서, 사회적 규칙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 1-18.
- 전명숙, 김혜리 (1999). 정서추론으로 살펴본 믿음과 바람에 대한 아동의 이해. *인간발달연구*, 6(1), 102-121.
- Arsenio, W. F. (1988).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situational affective consequences of sociomoral events. *Child Development*, 59, 1611-1622.
- Arsenio, W. F., & Kramer, R. (1992). Victimization and their victims: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mixed emotional consequences of mor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63, 915-927.
- Astington, J. W., & Gopnik, A. (1991). Developing understanding of desire and intention. In A. Whiten(ED.), *Natural theories of mind*. Oxford, U. K.: Blackwell.
- Bar-Tal, D. (1982). Sequential development of helping behavior: A cognitive-learning approach. *Developmental Review*, 2, 101-124.
- Cialdini, R. B., Baumann, D. J., & Kenrick, D. T. (1981). Insights from sadness: A three-step model of the development of altruism as hedonism. *Developmental Review*, 1, 207-223.

- Dovidio, J. F., Piliavin, J. A., Schroeder, D. A., & Penner, L. A. (2006). *The social psychology of prosocial behavior*. Mahwah, NJ: Erlbaum.
- Fabes, R. A., & Eisenberg, N. (1998). *Meta-analyses of age and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and adolescents' prosocial behavior*. Working paper, Arizona State University.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C., & Attanucci, J. (1988). Two moral orientations: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Merrill-Palmer Quarterly, 34*, 223-237.
- Gummerum, M., Hanoch, Y., Keller, M., Parsons, K., & Hummel, A. (2010). Preschoolers' allocations in the dictator game: The role of moral emotion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1*, 25-34.
- Keller, M., Gummerum, M., Wang, X., & Lindsey, S. (2004). Understanding perspectives and emotions in contract violation: Development of deontic and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74*, 614-635.
- Koehn, D. (1998). *Rethinking feminist ethics: Care, trust, and empathy*. London: Routledge.
- Kujala, J., & Pietilainen, T. (2004). Female managers' ethical decision-making: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Ethics, 53*, 153-163.
- Lagattuta, K. H. (2005). When you shouldn't do what you want to do: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sires, rules, and emotions. *Child Development, 76*(3), 716-733.
- Núñez, M., & Harris, P. L. (1998). Psychological and deontic concepts: Separate domains or intimate connection. *Mind and Language, 13*, 153-170.
- Nunner-Winkler, G., & Sodian, B. (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 emotions. *Child Development, 59*, 1323-1338.
- Peterson, C. C., & Siegal, P. (2002). Mindreading and moral awareness in popular and rejected preschooler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05-224.
- Power, T. G., & Shanks, J. A. (1989). Parents as socializers: Maternal and paternal view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203-220.
- Warneken, F., & Tomasello, M. (2008). Extrinsic rewards undermine altruistic tendencies in 20-month-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44*(6), 1785-1788.
- Wellman, H. M., & Lagattuta, K. H. (2000). Developing understanding of mind. In S. Baron-Cohen, H. Tager-Flusberg, & D. Cohen (Eds.), *Understanding other minds: Perspectives from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 (2nd ed, pp. 21-4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ellman, H. M., Phillips, A. T., & Rodriguez,

- T. (2001).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perception, desire, and emotion. *Child Development, 71*(4), 895-912.
- Wellman, H. M., & Woolley, J. D. (1990). From simple desires to ordinary beliefs: The early development of everyday psychology.

Cognition, 35, 245-275.

1차 원고 접수: 2013. 01. 15.
수정 원고 접수: 2013. 02. 21.
최종 게재 결정: 2013. 02. 22.

Korean adults' and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ation of others' sharing behaviors and others' emotions

Ji Young Yoon

Hyun-joo So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adults and children can understand that the motivation (intrinsic vs. extrinsic) of prosocial behaviors can influence others' emotions. Korean adults(Experiment 1) and 5- to 6-year-old children(Experiment 2) were asked to indicate the protagonist's emotions after listening to a series of stories. The stories varied on (1) whether or not the protagonist's desire was fulfilled after sharing his or her desired object and (2) whether his or her prosocial behavior had intrinsic or extrinsic motivation. Both adults and children reasoned that the protagonist would feel better when his/her desire was fulfilled than when his/her desire was not fulfilled. In addition, both adults and children reasoned that the protagonist would feel better when he or she shared the desired object with others voluntarily(intrinsic motivation) than involuntarily (extrinsic motivation). The results demonstrate children's understanding that others' emotions can be affected by the motivations of prosocial behaviors.

Keywords: emotions, desires, motivations, prosocial behavior, sharing behavior

